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

제27회 국제 대학생 식육품질평가대회(ICMJ)에 다녀와서...

부산대학교\_ 조영웅



7월 3일,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시드니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약 열 두시간 정도 긴 비행 끝에 대회 개최지인 CSU(Charles Sturt University)가 있는 와가와가(Wagawaga)라는 평온한 내륙도시에 도착하였다.

ICMJ(Intercollegiate Meat Judging Competition, 이하 ICMJ)란 대학생 식육품질평가대회로, 호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축산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각 나라의 축산 시스템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ICMJ는 1990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연례 행사이다.

나는 지난 5월 시행되었던 제7회 대학생 축산물 품질평가 대회에서 호주대회 출전자격(특별상)을 획득하여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도착 첫째 날(4일) 저녁에는 와가와가 시내의 RSL센터에 모여 대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참가자들끼리 친해질 수 있게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팀 소개시간을 가졌는데, 고리타분한 멘트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유쾌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소개를 하였기에, 비행기에서 달달 외운 지루한 멘트를 과감히 버리고 팀 멤버들과 함께 농담도 섞어가며 재미있게 소개를 하였다. '코리아'라고 말했을 때는 가우똥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이의 강남스타일 안무를 잠시 보여줬을 때는 청중들이 크게 환호해 주었다. 예상했던 것 보다 객석의 반응이 좋아서 기분 좋게 첫 날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5, 6일)은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주로 식육과학, 소·돼지 같은 경제동물뿐만 아니라 알파카와 같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식육동물 산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사들의 호주식 발음과 빠른 진행속도로 알아듣기가 버거웠으나, 다행히 프레젠테이션 결론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를 요약해주고, 강조하는 부분은 반복해서 알려주어 강의의 요점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대회를 위해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모든 수업은 교수님께서 직접 고기를 자르며 대분할에서 소분할까지 아주 시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수업이 대부분인데 호주에서는 학생에게 직접 보여주며,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ICMJ가 진행되는 동안 저녁만찬은 RSL센터에서 행해졌는데, 단순한 식사뿐 아니라 매일 다른 테이블번호를 부여하여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하며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간은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국제 축산 전공학생들과의 문화·상식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매일 다른 기업의 설명회 및 산업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는 7일은 대회가 진행되기에 앞서 호주 외 참가팀들의 자국 축산업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서가 있어 팀 리더였던 나는 우리나라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와 우리나라의 등급제와 이력제를 소개했는데,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이 사먹는 소고기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다. 외국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소개한 것은 자랑스럽고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다.

소(小)가축 대회에서는 양과 돼지 도체 평가, 리테일 컷(Retail Cut) 평가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이 진행되었다. 양·돼지 도체 평가는 4개의 도체를 나란히 두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각 도체를 비교한 사항들을 메모한 후에 뒤돌아서서 메모를 보지 않고 도체가치순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시험형식이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준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에 감을 잡을 수 없어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하였다. 리테일 컷 평가는 작년에 다녀온 선배들이 남겨준 자료와 노하우로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할 수 있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고 친숙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었다.

시험 둘째 날인 8일은 소(牛)에 대한 모든 평가가 이뤄졌는데 Tey's 도축가공장에서 시험이 진행되었다. 호주의 도축장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큰 편인데 이 도축장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축장이라 실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도축장의 크기뿐 아니라 관리가 철저히 잘 이루어진 위생 상태와 공정설계를 보며 역시 축산 강국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은 우리나라의 축산물품질평가대회와 같이 예냉실에서 3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예냉실 내 추위가 제법 매섭게 느껴졌으나, 세계적인 최첨단 도축시설에서, 그것도 각국에서 온 축산 인재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 추위 따위는 내 살갓을 뚫지 못하였다.



축산에 대한 배움, 정보교류, 다국적 친구들과의 네트워킹 구축 등 알차게 보냈던 지난 며칠간의 대회일정을 마무리하고 시상식 만찬에 참석하였다. 기대를 걸었던 리테일 컷 평가에서 다른 팀이 우승을 가져가 매우 아쉽고 힘이 빠졌으나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인 Beef Pricing(도체 경제적 가치판단)부문에서 준우승을 하여 ICMJ의 27년 역사 최초로 한국 팀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Beef Pricing은 소 도체의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하고 호주 쇠고기의 물가수준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정평이 난 분야이다. 때문에 수상의 쾌감과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ICMJ의 모든 일정을 끝내고, 상장을 품에 안은 채 시드니로 다시 돌아왔다. 호주 축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시장에 대해 배우기 위해 호주축산공사(Meat&Livestock Australia, 이하 MLA)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레젠테이션 내용 중 3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MLA측의 극복 전략과 감소하는 양고기 판매량을 판촉하기 위해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열흘간의 호주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지금은 고향땅에서 그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대회에서 수상 그 자체도 뿌듯하지만, 세계 각지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연단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해 당당하게 소개하고, MLA의 직원인 듯 회의실에서 자유롭게 질문하던 모든 과정들이 더욱 자랑스럽고 값지게 느껴진다. 축산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ICMJ 참가는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나 자신의 해외무대에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남은 대학생을 더욱 열정적으로 보내 장차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백종호 원장님과 호주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중심을 잡아주신 최규진 이력본부장님, 따뜻하게 지도해주시고 지지하지 않게 응원해주신 김희원 유통정보팀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